“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밝은 사회 만들겠다”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

전남 사랑의열매 ‘2025 나눔’ 첫 기부자…4천500만원 기탁

46년 김 산업 외길·25대 목포상의 회장 등 경제 활성화 기여

정현택(왼쪽서 네 번째) 목포 ㈜대창식품 대표이사는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첫 기부자로 나서 성금 4천500만원을 기탁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를 밝게 만든다는 신념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정현택 목포 ㈜대창식품 대표이사가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8일 대창식품 등에 따르면 최근 정 대표는 목포MBC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첫 기부자로 나서 성금 4천500만원을 기탁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목포시청에서 목포복지재단에 1천만원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과 17일에도 전남경찰청 봄봄봄 컨퍼런스 지원단에 1천만원, 신안군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추가로 기탁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46년간 김 산업 외길을 달리며 ㈜대창식품을 연간 8천만달러(약 1천131억원) 이상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올해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수출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7천만달러(약 990억원)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정 대표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며 발전과 겸손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숨은 선행은 목포 공생재단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으며,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목포 공생재단을 통해 21회에 걸쳐 공생원에 5천500만원, 공생재활원에는 6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그의 성금은 레이 경차, 세탁기, 컴퓨터, 건조기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로 전달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16년에는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나눔의 폭을 더욱 넓혔고, 지난해에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목포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권익 대변에 앞장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제51회 납세자의날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수상(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제102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한빛회)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상 수상 ▲제7회 중소기업경영인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중회) ▲제56회 납세자의날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산업포장 수훈 등으로 그간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았다.

정현택 대표는 “따뜻한 손길과 작은 행동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신념으로 오래전부터 기부에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윤풍식 ㈜국민 회장 등 ‘완도 청산면 사랑의 김장’ 후원

윤풍식(사진 뒷줄 왼쪽서 여덟번 째) ㈜국민 회장 등이 완도군 청산면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를 후원,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 김장김치가 전달됐다.

8일 완도군 청산면에 따르면 전날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기관·단체 및 재광향우회(고문 윤풍식·회장 지광일), 재경향우회(회장 최한일) 후원 및 회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800여포기를 담가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나눴다.

행사를 후원한 윤풍식(㈜국민 회장) 재광향우회 고문은 “고향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한일 재광향우회장은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철휴 청산면장은 “김장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새마을부녀회와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광주교통경제인단체協 ‘광주교통대상’ 시상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회장 조정래·이하 광교협)는 지난 6일 오후 광교협 사무실에서 교통가족 송년회 및 2024 광주교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객·화물운송·자동차 검사·정비·매매·렌트카 등 13개 교통단체에 종사하는 9만여 교통가족 중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교통대상 광주시장상에는 조재형(개인택시 대표)씨 등 13명, 광교협회장상엔 최진영 광주지역 플랫폼택시노동조합 의장 등 16명을 선정·표창했다.

조정래 회장은 “2025년이 광교협 창립 20주년”이라며 “광주시 13개 교통단체 9만여 회원 가족들의 교통 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광주녹색교통운동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토론회’ 성료

광주녹색교통운동은 “최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교통기술사협회 호남지회와 공동으로 ‘대자보 도시 광주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교통 전문가, 시청·구청 교통 담당자, 경찰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교통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교통정책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목표로 자동차 없이도 편리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는 광천권역 대자보 시범도시 구축, 보행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AI 관제시스템 도입, 법제도적 정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완석 광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 김효종 광주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오재철 교통기술사협회 부회장이 발제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준영 광주녹색교통운동 상임대표는 “짧은 거리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변화와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태평염전·태평소금, 파란꿈아동센터에 김치 전달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신안 증도 태평염전 및 ㈜태평소금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

태평염전 및 ㈜태평소금은 최근 광주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김장김치 110박스를 전달했다. 해당 김장김치는 광주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해 소외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아동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 2년 연속 인재육성기금 기탁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다도면 소재 해피니스컨트리클럽㈜(회장 양진석·사진 오른쪽)이 최근 지역인재육성기금 2천만원을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양진석 회장은 지난해에도 인재육성기금 2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기부 누적액도 현재까지 9천만원을 넘어서며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양진석 회장은 “소소하지만 나주의 미래인 학생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은 물론,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채만 기자

담양 수북면지사協, 거동불편 가구에 보행 보조기 지원

담양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11가구에 보행 보조기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보행 보조기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간단한 물품 운반도 가능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향촌돌봄 전수조사에서 발굴된 거동 불편 가구 등이다.

조용상 수북면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뜻깊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보행기로 마을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다니면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다목적구장 개장

광주시는 지난 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전천후 다목적구장을 조성, 개장했다.

개장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 광주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회원으로 구성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과 게이트볼 시타 등으로 이어졌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천후 다목적구장은 사업비 14억6천만원(국비 4억200만원·시비 10억5천800만원)이 투입돼 2개면 984㎡가 추가 조성됐다. 기존 사용 중인 2개 면을 포함하면 총 4개 면에서 게이트볼 경기가 가능해졌다.

강기정 시장은 “전천후 다목적구장 개장으로 어르신들이 날씨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이지원 강대철 서예정

광주·전남 ‘올해 과학교사상’ 3명 수상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에게 주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광주·전남 교사 3명이 선정됐다.

8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초등 15명, 중등 15명 등 총 30명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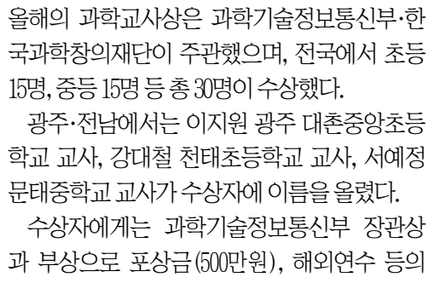
광주·전남에서는 이지원 광주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사, 강대철 천태초등학교 교사, 서예정 문태중학교 교사가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부상으로 포상금(500만원), 해외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지원 교사는 10여년간 ▲과학 및 STEAM 교육 연구회 ▲첨단과학기술 활용 창의융합과학(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등으로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강대철 교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초등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대표자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과학과 정보 융합 교육을 선도했다.

서예정 문태중학교 교사는 디지털 센서를 활용한 탐구 실험 콘텐츠를 개발하며 과학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강사로 활동, 디지털 기반 과학 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교대 목포부설초,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는 “최근 5학년 학생 40여명이 목포시 산정동 관내 취약계층 2세대에 연탄 400장을 전달하며 따듯한 마음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탄 나눔은 학생들이 추운 겨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교내 희망 콘서트 음악 기부, 나눔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김형순 산정동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 준 광주교육대 목포부설초 5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